
표준어 교육의 실태와 방향

이관규 ·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표준어 교육의 맛보기

<장면 1>

- ① 환자: 아이고, 이사 선생님, 멍치가 우리해서 왔어예.
의사: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 ② 환자: 의사 선생님, _____ 왔어요.
의사: 아, 멍치가 아파서 오셨군요.

<장면 2>

- 만수: 영철아, 겁나게 오래간만이다. 서울에서 언제 왔나?
영철: ① 만수구나. 지금 막 도착했어. 오랜만에 고향 말을 들으니
참 좋다.
② 만수구나. 지금 막 도착했어야. 아따, 오랜만에 고향 말
을 들으니 징하게 좋다야.

- 교육과학기술부(2010: 83~84)

위는 초등학교 4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장면 1>의 ①에서 환자가 방언으로 말을 하니까 의사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 <장면 1>의 ②에서는 밑줄을 치고 그 안에 적절한 표준어를 넣어 보라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의사소통을 위해서 표준어가 필요하

다는 점을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장면 2>는 오랜만에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고향에 온 영철이와 고향에서 생활하고 있는 친구 만수가 나누는 대화이다. 만수의 고향 말에 대하여 영철이가 표준어로 말할 때와 방언으로 말할 때 느낌의 차이가 어땠을까 알아보면서 방언의 가치를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는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언어로 표현한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반대로 누군가가 표현한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 준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모든 언어는 표준어든 방언이든 그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는 표준어와 방언을 함께 다루고 있다. 표준어와 방언의 가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표준어 교육이라는 말은 낫설지 않지만 방언 교육이라 하면 약간 낫선 감이 없지 않다. 교육의 중심을 표준어 쪽에 두고 있다는 말이다.

이 글에서도 각급 학교에서의 표준어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실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먼저 교사와 학생들이 표준어 및 그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피고, 이어서 교육 과정과 교과서를 통해서 표준어 교육의 실태를 점검해 보고, 나아가 앞으로의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2. 표준어 교육의 인식

표준어 교육의 실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의 실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의 인식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설문 조사를 통해서 학생과 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표준어와 표준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양상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들을 설문해 보았다. 설문 대상으로 한 각급 학교별 학생 숫자와 교사 숫자는 (1)과 같다. 설문 대상으로 삼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각각 두 군데씩이다. 초등학생은 5학년,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모두 2학년 학생들이었으며, 교사들의 담당 학년과 과목은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다.¹⁾

(1) 각급 학교별 설문 대상 숫자

	학생 수	교사 수
초등학교	101	32
중학교	117	31
고등학교	106	30
합계	324	93

2.1. 표준어의 필요성 인식

표준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 양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2) 학생의 표준어 필요성에 대한 인식

	① 아주 불필요하다		② 불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아주 필요하다		합계	
	숫자	%	숫자	%	숫자	%	숫자	%	숫자	%	숫자	%
초등학교	1	1.0	6	5.9	39	38.6	29	28.7	26	25.8	101	100
중학교	1	0.9	4	3.4	26	22.2	60	51.3	26	22.2	117	100
고등학교	0	0.0	3	2.8	13	12.3	66	62.3	24	22.6	106	100
합계	2	0.6	13	4.0	78	24.1	155	47.8	76	23.5	324	100

1) 초등학생을 5학년생으로 정한 것은 4학년 때 이들이 표준어와 방언에 대하여 학습을 했기 때문이다. 한편 설문 조사는 서울석촌초등학교, 서울당현초등학교, 상봉중학교, 서울사대부속중학교, 오산고등학교, 경화여자고등학교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의 인식 양상을 보도록 하자. 표준어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 아주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하는 학생들은 71.3%(각각 47.8%, 23.5%)를 차지하고 있어서, 국어 생활에서 표준어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들의 표준어 필요성 인식 정도가 매우 높으며(84.9%), 중학생(73.5%)과 초등학생(54.5%)의 인식 정도가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생의 표준어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은 후술하겠지만(10 참조) 초등학교에서 방언 교육을 매우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3) 교사의 표준어 필요성에 대한 인식

	① 아주 불필요하다		② 불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아주 필요하다		합계	
	숫자	%	숫자	%	숫자	%	숫자	%	숫자	%	숫자	%
초등학교	4	12.5	1	3.1	2	6.3	17	53.1	8	25.0	32	100
중학교	1	3.2	1	3.2	0	0.0	17	54.9	12	38.7	31	100
고등학교	0	0.0	4	13.3	5	16.7	11	36.7	10	33.3	30	100
합계	5	5.4	6	6.4	7	7.5	45	48.4	30	32.3	93	100

다음으로 교사들의 표준어에 대한 인식 양상을 알아보자. 교사들이 느끼는 표준어 필요성 인식 정도는 학생들보다 높아서 80.7%나 되고 있다(필요하다: 48.4%, 아주 필요하다: 32.3%). 학생들의 인식과는 차이가 나는데, 중학교 교사 93.6%, 초등학교 교사 78.1%, 고등학교 교사 70.0% 순서로 표준어 필요성 인식 정도를 보여 주고 있다. 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이 표준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지만 교사들은 중학교 교사들이 월등하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교사들의 표준어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주목된다.

2.2. 표준어 교육의 필요성 인식

이번에는 표준어 교육에 대해서 학생과 교사가 갖고 있는 인식 양상을 알아보도록 하자.

(4) 학생의 표준어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① 아주 불필요하다		② 불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아주 필요하다		합계	
	숫자	%	숫자	%	숫자	%	숫자	%	숫자	%	숫자	%
초등학교	2	2.0	20	19.8	43	42.6	26	25.7	10	9.9	101	100
중학교	0	0.0	17	14.5	32	27.4	55	47.0	13	11.1	117	100
고등학교	1	0.9	17	16.1	23	21.7	55	51.9	10	9.4	106	100
합계	3	0.9	54	16.7	98	30.2	136	42.0	33	10.2	324	100

먼저 학생들이 느끼는 표준어 교육에 대한 인식 양상을 알아보도록 하자. 학생들은 초·중·고 모두 함께 볼 때, 52.2%가 표준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는 앞서 (2)에서 본, 표준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71.3%와는 많은 차이가 나는 수치이다. 표준어가 필요하다고는 느끼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표준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말이다.

학교 급별로 볼 때는 비록 그 수치는 현격히 떨어지지만, 표준어 필요성과 표준어 교육 필요성의 인식 정도에서 전체적인 경향성이 일치하고 있다. 즉 고학년일수록 표준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더 느끼고 있다. 고등학생이 61.3%, 중학생이 58.1%로 상대적으로 높고, 초등학생은 35.6%로 매우 낮은 인식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뒤의 (10)에서 보겠지만 초등학교에서 방언 교육에 대해 강조하는 것과 상통한다고 이해된다.

(5) 교사의 표준어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① 아주 불필요하다		② 불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아주 필요하다		합계	
	숫자	%	숫자	%	숫자	%	숫자	%	숫자	%	숫자	%
초등학교	2	6.2	2	6.2	3	9.4	18	56.3	7	21.9	32	100
중학교	1	3.2	0	0.0	2	6.5	16	51.6	12	38.7	31	100
고등학교	0	0.0	6	20.0	5	16.7	13	43.3	6	20.0	30	100
합계	3	3.2	8	8.6	10	10.8	47	50.5	25	26.9	93	100

교사의 표준어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학생들과 차이가 많이 난다. 표준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7.4%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학생들의 52.2%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여 준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은 각각 78.2%, 90.3%, 63.3%가 표준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표준어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인다. 우리는 이미 (3)에서 초·중학교 교사들이 각각 78.1%, 93.6% 표준어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았다. 이에 비해 고등학교 교사들은 표준어 필요성도 그렇고 표준어 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교사가 판단하기에 고등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 표준어가 인지된 상태이고, 특히 고등학교는 상급 학교 진학 등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3. 표준어 교육의 실태

3.1. 교육 과정에서의 표준어 관련 내용

이제 학교에서 실행되고 있는 표준어 교육의 실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

자.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표준어 교육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자료는 국어과 교육 과정이다. 교육 과정에 따라 교과서가 제작되고 교과서에서 제시된 대로 실제 현장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먼저 교육 과정을 살펴보고 이의 구현체인 교과서 내용을 보도록 한다.²⁾

(6)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1997)에서의 표준어 관련 내용

- ㄱ.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표준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초-5학년-말하기-(5)]
표준어와 방언의 개념을 안다. [초-5학년-국어 지식-(4)]
공식적인 상황에서 표준어를 사용한다. [초-5학년-국어 지식-(5)]
상황에 따라 방언과 표준어를 구별해서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초-5학년-국어 지식-(6)]
- ㄴ. 국어 규범 지식 [고-국어 생활-(2)-(가)-①]
국어 규범 사용 [고-국어 생활-(2)-(가)-②]
- ㄷ. 표준어와 비표준어를 구별하여 말한다. [고-화법-②-(㉔)]
- ㄹ. 표준어와 방언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상황에 따라 바르게 사용한다.
[고-문법-(3)-(가)-②]

(6)에서 보듯이 제7차 교육 과정 시기에는, 초등학교에서는 표준어가 주로 ‘국어 지식’(문법) 영역에서 다루어졌으며, 공식적인 상황에서 표준어 말하기 교육이 5학년에서 이루어졌다. 중학교 때는 특별한 표준어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행 마지막 시기인 2011년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국어 생활’이라는 과목에서 전체 국어 규범이라는 차원에서 표준어가 다루어지고 있으며, 역시 선택 과목인 ‘화법’과 ‘문법’에서 다루

2) 2011년 현재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 3학년은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서로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제8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서로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9차 교육 과정은 2011년 8월 9일에 발표되었는데, 2013년 3월부터 학교 급별 및 학년별로 교과서가 현장에 순차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어지고 있다. 특히 방언과 함께 가르쳐지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표준어와 방언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7) 제8차 국어과 교육 과정(2007)에서의 표준어 관련 내용³⁾

- ㄱ. 표준어와 방언의 사용 양상을 이해한다. [초-국어-4학년-문법-(1)]
 - ㄴ. 지역 방언을 듣고 언어의 다양성과 소통의 의미를 이해한다. [중-국어-9학년-듣기-(3)]
 - ㄷ. 상황에 따라 표준어와 비표준어를 구별하여 말한다. [고-화법과 작문 I-(2)-가-①㉞]
 - ㄹ. 표준 발음법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발음한다. [고-독서와 문법 I-(1)-가-①]
- 각 지역 방언의 특징을 탐구하고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발음한다.
[고-독서와 문법 I-(1)-가-②]
- 한글 맞춤법 원리와 표준어 규정을 이해하고, 단어를 올바르게 사용한다.
[고-독서와 문법 I-(1)-나-①]

(7)의 제8차 교육 과정에서도 문법과 화법 차원에서 표준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현재 표준어 교육이 초등학교에서는 4학년 문법 영역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화법과 문법 차원에서 표준어가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7ㄴ, ㄹ)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표준어 교육이 지역 방언과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7ㄴ)의 것은 중학교 3학년의 ‘듣기’ 영역에서의

3) 2007년과 2011년에 나온 국어과 교육 과정은 공식 명칭에 제8차, 제9차라는 말이 들어 있지 않다. 2007년 것은 그냥 ‘국어과 교육 과정’, 2011년 것은 ‘2009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으로 고시되어서, 교육 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할 때 헷갈리곤 한다. 1997년 것을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이라 하니, 필자는 2007년 것을 제8차 국어과 교육 과정, 2011년 것을 제9차 국어과 교육 과정이라고 이 글에서 명명하도록 하겠다. 한편 2009년 교육 과정을 말하곤 하는데, 그것은 고등학교 선택 과목(화법과 작문 I·II, 독서와 문법 I·II, 문학 I·II)에 한한 것일 뿐이다.

방언 관련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다루려면 어차피 표준어에 대한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제시하였다.

(8) 제9차 국어과 교육 과정(2011)에서의 표준어 관련 내용

- ㄱ. 표준어와 방언의 가치를 알고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초-국어-3·4학년군-쓰기-(2)]
- ㄴ. 어문 규범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한다. [중-1~3학년군-문법-(3)]
- ㄷ.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을 알고 교양 있는 표기 생활에 대해 알아본다. [고-국어 I-문법-(12)]
- ㄹ.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을 이해하고 국어 생활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고-독서와 문법-(9)]

제9차 국어과 교육 과정은 2013년부터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표준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예상하게 해 준다. (8ㄱ, ㄴ)에서 보듯이 2013년부터는 초등학교 3·4학년에 ‘쓰기’ 영역에서 표준어가 다루어지고, 또한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중학교 과정에서 표준어가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는 다른 어문 규범 내용이 나오지만 표준어에 대해서 특별히 단원을 통해 교수 학습되지 않을 전망이다(8ㄷ, ㄹ).

(9) 제7차~제9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의 표준어 관련 내용

	제7차(1997)	제8차(2007 [2009])	제9차(2011)
초등학교	○ ‘국어’ 5학년 [말하기, 국어 지식] 표준어와 방언	○ ‘국어’ 4학년[문법] 표준어와 방언	○ ‘국어’ 3·4학년군 [쓰기] 표준어와 방언
중학교		○ ‘국어’ 9학년[듣기] 지역 방언	○ ‘국어’ 중1~3학년군 [문법] 어문 규범
고등학교	○ ‘국어 생활’	○ 화법과 작문 I [2009]	○ 국어 I

	제7차(1997)	제8차(2007 [2009])	제9차(2011)
	어문 규범 ○ ‘화법’ 표준어와 비표준어 ○ ‘문법’ 표준어와 방언, 표준 발음	표준어와 비표준어 ○ 독서와 작문 I [2009] 표준 발음법, 지역 방언, 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 ○ ‘독서와 문법’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지금까지 살펴본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의 표준어 관련 내용은 (9)에 서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제7차와 제8차에서는 주로 문법과 화법 영역 차원에서 표준어가 방언과 함께 다루어져 왔으나 제9차에서는 주로 문법에서 다루어지고 쓰기 영역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제7, 8차 때는 중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취급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제9차 때는 중학교에서도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전에는 고등학교에서 표준어가 많이 다루어져 왔으나 제9차 때는 다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와 같은 예상은 교육 과정에 나타난 성취 기준의 내용을 주로 갖고 한 것이며, 실제 교수 학습 현장에서는 교수 학습의 자료로서 표준어와 방언들이 더 많이 다루어질 수도 있다.

3.2. 교과서에서의 표준어 관련 내용

이번에는 교육 과정의 구현체인 교과서에 나타난 표준어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표준어를 다룬 교과서로는 초등학교 ‘국어(듣기·말하기·쓰기)’ 4학년 1학기 것을 주목할 수 있다.

(10) 초등학교 ‘국어(듣기·말하기·쓰기) 4-1’의 표준어 관련 내용

【5. 알아보고 떠나요】

표준어와 방언에 대하여 알아보시다.

표준어와 방언을 상황에 알맞게 사용하면 좋은 점을 알아보시다.

방언을 조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조사해 봅시다.

조사한 방언을 정리하고 발표 준비를 해 봅시다.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여 봅시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여 봅시다.

놀이터

제8차 교육 과정의 4학년 문법 영역에 제시된 ‘표준어와 방언’ 내용은 전체 8개 대단원 가운데 1개를 차지하고 있다. 그 분량도 전체 164쪽 가운데 18쪽을 차지하고 있어서 매우 강조되고 있다. 그 순서는 (10)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일단 표준어와 방언이 모두 가치가 있음을 학습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표준어보다 방언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개 항목만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를 다루고 대부분은 방언 조사 및 그 결과 발표를 하는 학습 방식으로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2), (4)의 설문 결과 중 초등학교 학생들의 응답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초등학교 학생들은 표준어보다는 방언 쪽에 보다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는데, 이는 곧 교과서 자체가 방언을 강조하는 교육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1) 중학교의 ‘국어 3-1’, ‘생활 국어 3-1’의 표준어 관련 내용

국어 2. 중심 내용 파악하기 [읽기]

(1) 표준어와 방언

생활 국어 2.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 [쓰기/국어 지식]

[부록] 간추린 표준어(2단원 관련)

중학교에서의 표준어 교육은 교육 과정을 볼 때 공식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게 옳다. (9)에서 보았듯이 현행 중학교 3학년에서는 교육 과정상 표준어 관련 항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

인적자원부(2003)에서 펴낸 ‘국어 3-1’ 교과서에 (11)에서와 같이 읽기 자료로서 ‘표준어와 방언’ 항목이 들어가 있다. 본격적인 표준어 교육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나마 표준어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생활 국어 3-1’의 〈부록〉에서는 ‘간추린 표준어’라 하여 맞춤법과 관련한 표준어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표준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12) 고등학교 ‘국어 생활’, ‘화법’, ‘문법’의 표준어 관련 내용

- ㄱ. 국어 생활 [김홍규 외(2003)] II. 바른 국어 생활
 - 1. 국어 규범 지식
 - 2. 국어 규범의 사용
- ㄴ. 화법 [김광해 외(2003)] II. 화법의 원리와 태도
 - 3. 화법의 언어적 원리 2) 정확하게 표현하기
 - [부록] 1. 표준 발음법
- ㄷ. 문법 8. 국어의 규범
 - 1. 표준어와 표준 발음

2011년도 현재 고등학교에서 국어과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표준어 교육은 (12)에서 보이듯이 ‘국어 생활’, ‘화법’, ‘문법’ 과목에 분산되어 시행되고 있다. ‘국어 생활’은 2003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사용 되는 검정 교과서이고, ‘화법’도 마찬가지다. ‘문법’은 2002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사용되는 국정 교과서이다. 이 세 가지 과목은 모두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배우지는 않는다. 필수적으로 배우는 ‘국어(상·하)’에는 표준어 관련 내용이 없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표준어 교육을 모든 학생들이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국어 생활’이나 ‘문법’ 교과서에서는 어문 규범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 표준어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화법’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기의 일환으로 표준 발음, 표준어 등을 다루고 있다(12ㄴ).

요컨대 국어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표준어 관련 내용은 교육 과정 상으로는 초등학교에서 강조되고 있으나 실제 교과서 내용으로는 방언 교육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교육 과정에서는 전혀 없으나 읽기 자료로서 일부 다루어지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필수 과목인 ‘국어’에 표준어 관련 내용이 없고 ‘국어 생활’, ‘문법’, ‘화법’ 선택 과목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4. 표준어 교육의 방향

이상으로 표준어 교육에 대해서 학생과 교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표준어 교육은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서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표준어 교육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방언 교육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피가 잡혀 있지 않다. 또한 표준어 교육이 학교 교육에서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음을 보았다. 초등학교에서 강조되는 경향이고 고등학교로 오면서 그 중요도가 약화되고 있는 측면이 엿보인다. 이러한 인식과 실태 하에서 표준어 교육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기본적으로 표준어는 추상적인 인공어라는 의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최근 현실 언어를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표준어도 당당히 여러 언어 표현들 가운데 하나로서 공식적이며 교양 있고 품위 있는 실재 언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살아 있는 국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역시 살아 있는 표준어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표준어 아닌 소위 방언들과의 관계 정립에 대해서도 분명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모든 언어는 살아 있다. 공식적인 말하기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개별 방언을 사용하는 것보

다 효율성이 높다. 즉 때와 장소에 따라서 표준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개별 방언을 사용할 수도 있다. 시골 고향 친구를 만났을 때는 그 지역 방언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친밀감을 더욱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병원 진료 시에 특정 방언을 모르는 의사에게는 표준어로 말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표준어 교육이 주로 지역 방언과의 관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 언어나 개인어 등과도 관련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들의 욕설 등 비속어 사용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면서 교양 있고 품위 있는 언어 사용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언어 습관을 질타와 멸시의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해와 협조의 마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은 항상 자신의 언어생활을 되돌아보고 돌봐야 할 것이다.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표현한다면 다른 사람의 처지를 고려하고 또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분위기에 적절한 언어 표현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고 바람직한 언어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모든 언어는 가치가 있다. 언어를 통해서 나의 생각이 전달되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표준어든 방언이든 집단어든 개인어든 칭찬의 말이든 욕하는 말이든 그 나름대로는 가치가 있다. 중요한 것은 부정적 가치가 아닌 긍정적 가치를 지닌 언어를 우리의 국어 생활 속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표준어 교육은 제도권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바람직한 국어 생활이 바른 표준어 교육에서 시작된다고 하면 지나친 말인가?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3), 《중학교 국어》 3-1, 한국교원대학교·고려대학교 국정
도서편찬위원회.
- 교육과학기술부(2003), 《중학교 생활 국어》 3-1, 고려대학교·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 교육과학기술부(2009), 《고등학교 선택 과목 교육 과정》.
- 교육과학기술부(2010), 《국어: 듣기·말하기·쓰기》 4-1, 한국교원대학교·서
울교육대학교 국정도서국어편찬위원회.
- 교육과학기술부(2011), 《국어과 교육 과정》.
- 교육인적자원부(1997), 《국어과 교육 과정》.
- 교육인적자원부(2002), 《고등학교 문법》,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교육인적자원부(2007), 《국어과 교육 과정》.
- 김흥규 외(2003), 《고등학교 국어 생활》, 천재교육.
- 김광해 외(2003), 《고등학교 화법》, 형설출판사.

